원희룡 장관, “한-오만 도시개발 협력방안 모색”

- 28일 오만 주택도시계획부 장관 만나 도시개발·스마트시티 협력방안 논의 -

□ **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**은 3월 28일(화) 오후 5시 30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방한 중인 칼판 알-슈에일리(Khalfan Al-Sueili) **오만 주택도시계획부 장관**을 만나 양국 **도시정책 분야 협력방안** 등을 논의하였다.

□ 이 자리에서 **원 장관**은 “칼판 알-슈에일리 장관님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, 오만 정부의 ‘**비전 2040**’ **발전 프로그램**을 추진하는데 있어 **양국 간 협력과제**를 **발굴**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□ **알-슈에일리 장관**은 ”오만은 **‘비전 2040’**에 따라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**메트로, 도시계획, 스마트시티, 대중교통 정책** 등을 포괄한 전반적인 도시개발 분야에서 **노하우를 공유**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”고 화답하며,

○ “특히, 오만 내 **5~6개 도시**에 대해 **스마트시티 개발계획**을 추진 중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, 서비스 및 기술 분야 등에 있어서 **한국과의 협력을 기대**한다”고 밝혔다.

□ 이에 **원 장관**은 “한국과 한국기업은 **우수한 ICT 기술**을 바탕으로 **다양한 스마트 서비스**를 적용한 **스마트도시**를 조성한 **노하우**와 **경험**이 풍부하여 협력 기회가 많을 것”이라고 답변하며

○ “올해 **9월에 킨텍스**에서 개최 예정인 **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**에 참석할 것을 제안하며, 한국의 **우수한 민간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**하고, 양국 간 **스마트시티 분야 교류 협력**을 **강화**할 **기회**가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○ 또한 “2018년에 **국토부**와 **오만 두큼경제특구청**은 **스마트도시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**을 체결한 바 있으며, 이번 계기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
□ **알-슈에일리 장관**은 우리측의 제안에 사의를 표하며, ”현재 오만은 수도인 **무스카트**에 대해 **경전철 개발**을 토대로 한 **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**을 추진 중으로, **마스터플랜에 대한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국토부와 LH 등 관련기관에서 적극 지원해** 줄 것“을 요청하였다.

○ 이에 대해 **원 장관**은 ”**양국 전문가 파견** 등 **교류 협력을 추진**하여 도시 분야에서의 **구체적인 협력을 확대**해 나가자“고 화답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는 향후 **오만** 등 **중동** 지역과의 **교류**를 **지속 강화**하고 **유망 협력사업**을 **발굴**하는 등 **우리 기업의 진출**을 **적극 지원**해 나갈 계획이다.

2023. 3. 28.

국토교통부 대변인